



본 분석보고서는 한국 거래소 코넥스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 (KONEX Research Project)에 선정되어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 피노텍 (150440)

대환대출 플랫폼 '싸니자로'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 Analyst 기업분석팀 bongjinlee@hanwha.co 3772-7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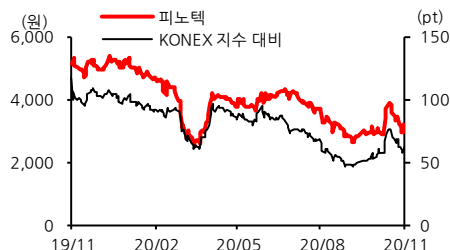
<b>Not Rated</b>	
현재 주가(11/19)	3,190원
상승여력	n/a
시가총액	305억원
발행주식수	9,565천주
52 주 최고가 / 최저가	5,380 / 2,600원
90 일 일평균 거래대금	21,443천원
외국인 지분율	0.0%
주주 구성	
김우섭 (외 6인)	32.4%

주가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수익률	7.6	-14.1	-18.2	-38.5
상대수익률(KOSDAQ)	11.3	-12.3	-39.6	-65.3

(단위: 억 원, 원, %, 배)

재무정보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109	110	216	161
영업이익	-23	-29	20	-11
EBITDA	-20	-25	27	-3
지배주주순이익	-24	-36	7	-17
EPS	-278	-386	77	-182
순차입금	-19	42	7	77
PER	-28.9	-18.9	77.7	-29.6
PBR	15.1	39.9	15.7	26.9
EV/EBITDA	-35.2	-28.4	21.5	-206.1
배당수익률	n/a	n/a	n/a	n/a
ROE	-54.2	-111.1	27.3	-62.5

## 주가 추이



피노텍은 전자등기 솔루션을 출시하며 핀테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의 전자등기를 통한 비용 축소화 노력,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시장 의무화 추세 등 성장을 위한 시장 환경은 조성되었습니다. 향후 동사의 성장을 이끌 대환대출 플랫폼 '싸니자로'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 다양한 핀테크 솔루션 개발

피노텍은 2009년 금융권 공급용 인터넷 전자등기 솔루션을 출시하며 핀테크 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비대면 담보대출 솔루션, 비대면 금융거래 통합 솔루션, 시스템 통합(SI)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국내 70~80% 이상의 금융기관에 솔루션 및 플랫폼을 공급 중이다. 2018년에는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동사가 개발한 솔루션으로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는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 비대면 담보대출 솔루션의 구조적 변화

동사는 2019년 매출액 161억 원, 영업손실 11억 원을 기록하였다.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비대면 담보대출 솔루션 4.5%, 비대면 금융거래 통합 솔루션 21.3%, 시스템 통합(SI) 및 유지보수 74.2%이다. 비대면 담보대출 솔루션의 매출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환대출 사업이 가세하게 되면 비중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건당 고정 수수료가 발생하는 B2B의 인터넷 전자등기 솔루션을 통해서만 매출이 발생하지만, 향후 대환대출 솔루션인 '싸니자로'를 통해 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B2B2C, B2C 사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 대환대출 플랫폼 '싸니자로'의 성장 잠재력

싸니자로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은행 방문 없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즉, '싼 이자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동사가 최초로 개발한 금융 플랫폼이다. 동사는 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영역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에 거듭 선정되며, 잠재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는 주요 카드사와 협업을 통해 B2B2C 사업을 준비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주요 은행들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인이 직접 모바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B2C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들의 추가 제정 여부 및 동사의 플랫폼이 기존 금융기관에 얼마나 채택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 기업 개요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위한  
핀테크 기업

피노텍은 금융기관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동사의 사업영역은 1)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시 담보물에 대한 권리확보 등의 전자등기 처리를 위한 “비대면 담보대출 솔루션”, 2) 금융기관의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고객확인 및 업무처리를 위한 “비대면 금융거래 통합 솔루션”, 3) 수요처 대상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유지보수를 하는 “시스템 통합(SI) 및 유지보수”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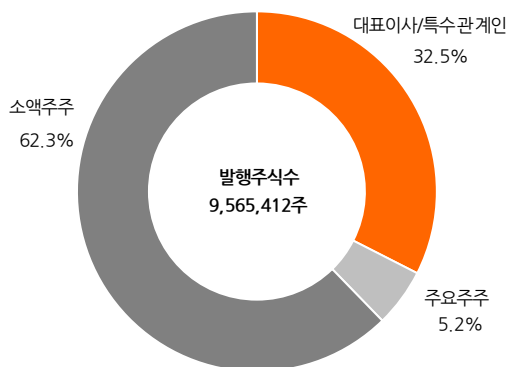
동사는 2009년 금융권 공급용 인터넷 전자등기 솔루션을 출시하며 핀테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 코넥스에 상장 후, 2015년 금융 SI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아이스트로와 합병하며 사명을 피노텍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2015년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계좌 개설의 승인 및 관련 가이드 배포에 맞추어 “비대면 금융거래 통합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동사는 국내 70~80% 이상의 금융기관에 솔루션 및 플랫폼을 공급 중이다. 2018년에는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동사가 개발한 솔루션으로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는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2021년부터 관련 법률 제정 및 제휴 금융사 확대를 통해 성장이 기대된다.

[표1] 회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회사명	(주)피노텍
설립일	2008년 11월
자본금	47.8억 원
사업영역	은행 등 금융기관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위한 솔루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9길 1 3층(양재동,용두빌딩)
직원 수	50명
홈페이지	https://www.finote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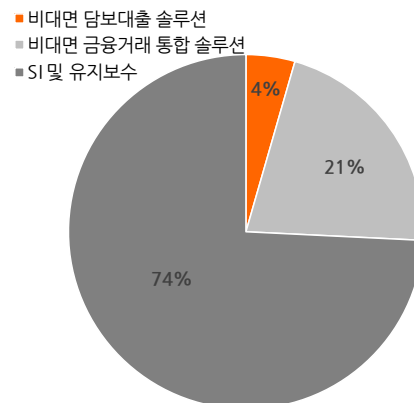
자료: Dar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주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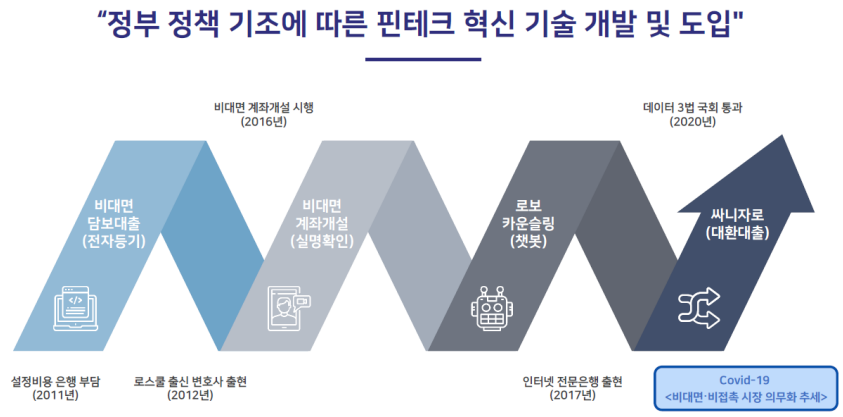
자료: Dar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2019년 매출 비중



자료: Dar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피노텍의 비즈니스 로드맵



자료: 피노텍,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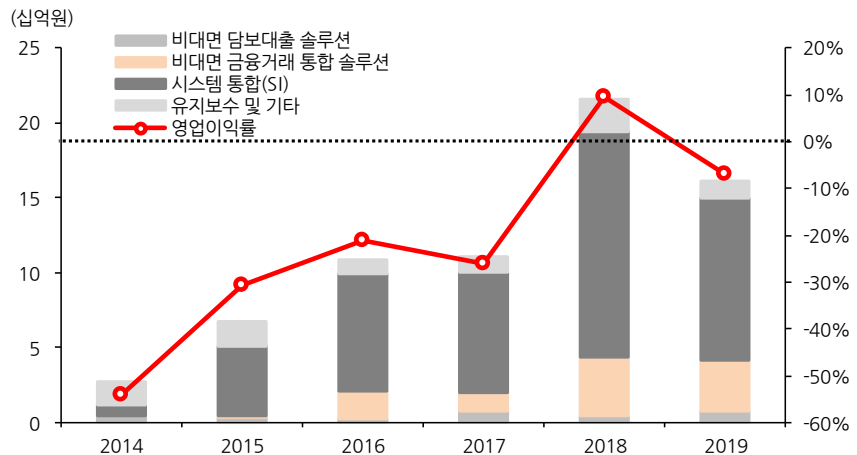
[그림4] 피노텍의 사업 영역 및 레퍼런스

### "국내 70~80% 이상의 금융기관에 솔루션 및 플랫폼 공급 중"



자료: 피노텍,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사업 부문별 실적 추이



자료: Dar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사업 영역

### 비대면 담보대출 솔루션: 전자등기 & 싸니자로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전자등기 솔루션

과거 국내 주요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오프라인 지점을 반드시 이용해야 했다. 이는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근저당 업무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전자등기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오프라인 작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다.

동사의 전자등기 솔루션은 B2B 형태로 금융기관에 직접 제공되며, 일반 고객이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동사의 솔루션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기존 오프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최소 1~2일 걸리는 일을 전자등기는 20분 만에 처리가 가능하며, 시간과 각종 비용 측면에서 전자등기를 사용하는 것이 많은 이점이 있다. 현재 경쟁사는 1곳 존재하며, 동사는 전자등기 솔루션 외에도 본인인증, 전자서명 등의 솔루션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경쟁우위가 있다. 동사의 전자등기 솔루션은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형태로 제공되며, 업무 건당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B2B → B2B2C / B2C로  
구조적 성장을 기대

비대면 담보대출 솔루션은 2019년 기준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하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환대출 사업이 가세하게 되면 비중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건당 고정 수수료가 발생하는 B2B의 전자등기 솔루션을 통해서만 매출이 발생하지만, 향후 대환대출 솔루션인 “싸니자로”를 통해 거래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B2B2C, B2C 사업으로 구조적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카드사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다른 카드사까지 범위를 넓혀갈 B2B2C 사업, 개인이 직접 각 금융기관의 대출을 비교하여 싼 대출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B2C 사업은 향후 동사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그림6] 비대면 담보대출 플랫폼 사업 구조



[그림7]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 구조



자료: 피노텍,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피노텍,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비대면 금융거래 통합 솔루션: 본인인증 & 전자계약 & 로보카운슬링

비대면 금융거래 통합 솔루션은 비대면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분증 인식 기술, 로보 카운슬링, 전자문서 및 자필서명 인증 기술 등을 제공한다. 2015년 5월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계좌 개설의 승인 및 관련 가이드 배포에 맞추어 동사가 개발하고 제공하는 중이다. 2019년 기준 전체 매출의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솔루션에 차별점을 두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 하고있다. 신분증 인식 기술은 동영상 촬영 방식을 이용하여 인식률을 제고하였고, 로보 카운슬링은 다국어 지원 기능을 추가하였다. 전자문서 및 자필서명 인증 기술은 전자문서 내 서명 및 증표들을 병합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모바일 채널을 통하여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현재 동사가 유일하다.

현재 동사는 제2 금융권 및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이 요구되는 계좌개설/전자금융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1단계로 구축한 금융기관에서는 전자문서, 자필서명, 전자등기 등의 기술을 결합하여 여신(대출) 상품으로도 영역을 확대하려 준비 중이다.

### 시스템 통합(SI) 및 유지보수

국내 대기업 S사와의  
협업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존재

SI 및 유지보수는 법무관리/업무관리/고객관리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5년 금융기관 대상으로 SI 사업을 영위하는 100% 자회사 아이스트로를 합병하면서 SI 매출이 급증해 2019년 기준 매출 비중 74.2%를 차지한다. 그러나, SI 사업은 상대적으로 타 부문에 비해 수익성은 떨어지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아이스트로와 합병한 것은 외형 성장보다는 금융기관에 대한 아이스트로의 이해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실제 인수한 첫해의 영업이익은 적자폭이 확대되었지만, 이후 2018년 흑자전환을 하였고, 기존 사업부 성과 역시 올라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 S사 및 H사의 협업 업체로 등록하였고, 비대면 금융/공공부문 ITO 사업을 추진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림8] 비대면 금융-공공부문 ITO 사업 공동 추진



자료: 피노텍,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대한대출 플랫폼 ‘싸니자로’의 잠재력

B2B2C 모델로  
사업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B2C를 향하여

대한대출 데이터 플랫폼인 ‘싸니자로’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은행 방문 없이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즉, ‘싼 이자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동사가 최초로 개발한 금융 플랫폼이다. 대한대출은 그동안 금융회사 간 협조체계 미비로 인해 여신의 이동 업무에 있어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던 부분이였다. ‘싸니자로’는 여신의 이동 업무를 모바일을 활용하여 조회, 이동, 행정처리 등 윈스톱으로 해결 할 수 있어 그동안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플랫폼은 동사가 최초로 개발한만큼 아직 경쟁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 동사는 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영역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에 거듭 선정되며, 잠재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는 카드사와 협업을 통한 B2B2C 모델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B2C 모델을 통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 B2B2C: 주요 카드사와 협업 시작

연 45~90억 원, 그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는 B2B2C

카드사와의 B2B2C 사업 모델은 동사가 카드사에 싸니자로 플랫폼을 제공하면, 카드사의 고객들은 타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의 대출을 싸니자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해당 카드사의 중저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간편히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득하였으며, 동사는 주요 카드사와 이미 협업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향후 다른 카드사로도 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현재 협업 중인 카드사의 고객 중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90만 명, 이 중 5%가 연간 싸니자로를 통해 대한대출을 한다 가정해 보겠다. 신용대출 평균액 1,000만 원, 대출 이동금액 수수료를 1~2%로 보면 동사는 연간 45~9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주요 카드사까지 확장을 고려하면 추가 매출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림9] B2B2C 싸니자로 연계



자료: 피노텍,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공극적으로 B2C 를 향해

개인이 직접하는  
대환대출 솔루션을 행해

공극적으로 동사가 그리는 그림은 B2C 사업에 있다. 향후 출시될 싸니자로 모바일 앱은 사용자가 직접 각 금융기관의 대출을 비교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동사는 주요 8개 은행의 대환대출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2년 전부터 핀테크 바람이 불며 금융위원회도 해당 시장을 확장시키려는 중이며, 소수의 주요 은행들만 추가로 참여하게 된다면 이후 중소 은행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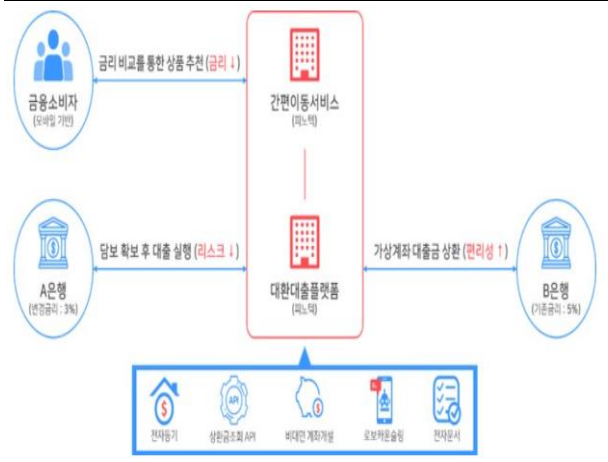
연 매출 430억 원의  
성장 잠재력 보유

국내 B2C 대환대출 시장규모를 추산해보면, 2020년 8월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812조 원이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60조 원이다. 동사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처리 가능하므로 이 둘의 규모는 6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3년에 한번 만기를 연장하고 있으며, 피노텍을 통한 대환대출 비중 10%, 대출 중계수수료 0.2%를 가정 시 동사는 연 4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해당 시장은 동사가 개척해 나갈 시장으로 경쟁자는 아직 없으며, 전자등기 처리 비중은 꾸준히 높아질 것이고, 예금은행 외 비은행예금기관까지 영역을 넓히고, 대출 영역 또한 전세대출·자동차대출 등 기타 영역까지 넓어질 것을 고려하면 동사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관련 법률 제정 및  
금융기관들의 동사 플랫폼  
채택 여부는 주시할 필요

다만,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중개법인에 등록된 후 각 금융사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요건만 갖추면 대출모집중개법인으로 등록되는 금융소비자법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며, 동사는 해당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 이후 각 금융기관과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며, 기존 방법에 익숙한 금융기관들이 동사의 플랫폼을 얼마나 채택할지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10] 대환대출 플랫폼 개요



자료: 피노텍,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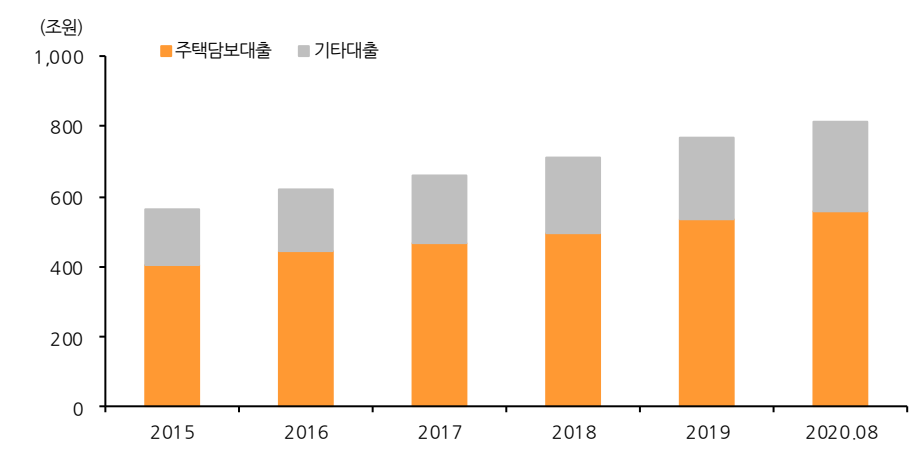
[그림11] 싸니자로 기반 마련 및 추진 경과

- 1) 위탁테스트 선정(2018)
  - 국민은행, 신한은행
- 2) 지정대리인 선정
  - 1차 : 우리은행, NH농협은행
  - 2차 : IBK기업은행
  - 4차 : 수협은행, 부산은행
  - 6차 :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스몰 라이선스 도입 (예정)  
 : 핀테크 기업이 비상 금융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펼 수 있게 임시 허가를 내주는 제도
- 3)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대기 중(2020)
- 4) 금융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 중
  - ex. 계좌이동제, ISA이동제, 카드이동제, 연금이동제...
- 5)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2020.03)
  - 금융 거래 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1차 전속주의 일괄 해제 등)
  - 2021년 3월 시행 예정

자료: 피노텍,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국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액 추이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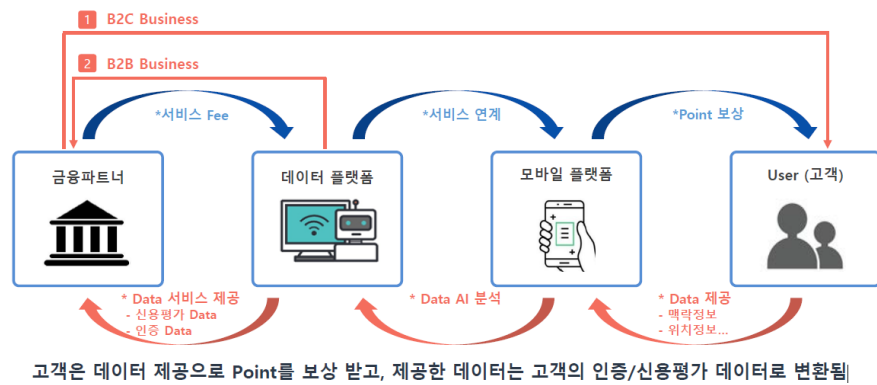
### 신남방 모바일 데이터 플랫폼

신규사업 신남방 모바일 데이터 플랫폼의 성장도 기대

동사는 주요 사업 외에도 신남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데이터 플랫폼 사업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동사의 플랫폼(앱)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SNS 정보, 위치 정보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가로 point 등의 보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플랫폼의 쌓인 데이터들은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통해 가공되어 현지의 금융파트너에게 제공되고 금융파트너는 가공된 정보를 신용평가/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인도네시아 10대 기업 중 하나인 아사바 그룹과 현지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히며 사업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단기간의 큰 매출을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국내의 주요 업체 및 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는 만큼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도 기대된다.

[그림13] 모바일 데이터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자료: 피노텍,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단위: 억 원)

12 월 결산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63	109	110	216	161
매출총이익	21	25	25	73	42
영업이익	-19	-23	-29	20	-11
EBITDA	-14	-20	-25	27	-3
순이자손익	-2	0	-4	-7	-9
외화관련손익	0	0	0	0	0
지분법손익	-2	0	0	0	0
세전계속사업손익	-15	-24	-37	7	-17
당기순이익	-15	-24	-36	7	-17
지배주주순이익	-15	-24	-36	7	-17
<b>증가율(%)</b>					
매출액	128.6	73.8	1.1	95.5	-25.4
영업이익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적전
EBITDA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적전
순이익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적전
<b>이익률(%)</b>					
매출총이익률	32.7	22.5	22.7	34.0	25.9
영업이익률	-30.7	-21.0	-26.2	9.5	-6.9
EBITDA 이익률	-22.1	-18.2	-23.1	12.5	-1.8
세전이익률	-23.8	-22.4	-33.5	3.0	-10.8
순이익률	-23.8	-22.2	-32.6	3.4	-10.8

현금흐름표

(단위: 억 원)

12 월 결산	2015	2016	2017	2018	2019
영업현금흐름	1	-26	-34	38	-57
당기순이익	-15	-24	-36	7	-17
자산상각비	5	3	3	6	8
운전자본증감	13	-9	-9	9	-56
매출채권 감소(증가)	-6	-2	-22	-2	-36
재고자산 감소(증가)	0	0	0	0	0
매입채무 증가(감소)	0	0	0	0	0
투자현금흐름	-7	-10	-27	-7	-5
유형자산처분(취득)	-1	-1	-3	0	-1
무형자산 감소(증가)	-7	-9	-18	-6	0
투자자산 감소(증가)	1	0	-1	0	0
재무현금흐름	24	37	48	-14	60
차입금의 증가(감소)	-7	9	46	-29	60
자본의 증가(감소)	31	29	2	15	0
배당금의 지급	0	0	0	0	0
총현금흐름	-12	-17	-25	29	0
(-)운전자본증가(감소)	-13	8	4	-10	53
(-)설비투자	2	1	3	0	1
(+)자산매각	-7	-9	-18	-6	0
Free Cash Flow	-7	-35	-50	32	-55
(-)기타투자	-1	1	9	2	7
잉여현금	-7	-36	-59	30	-62
NOPLAT	-14	-17	-21	15	-8
(+) Dep	5	3	3	6	8
(-)운전자본투자	-13	8	4	-10	53
(-)Capex	2	1	3	0	1
OpFCF	3	-23	-24	31	-55

주: IFRS 연결 기준

재무상태표

(단위: 억 원)

12 월 결산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동자산	46	44	57	73	103
현금성자산	33	32	19	34	31
매출채권	13	12	33	35	69
재고자산	0	0	0	0	0
비유동자산	34	43	63	58	57
투자자산	3	3	6	9	12
유형자산	1	2	4	3	5
무형자산	29	38	53	46	40
<b>자산총계</b>	<b>80</b>	<b>87</b>	<b>120</b>	<b>131</b>	<b>160</b>
유동부채	35	24	44	95	45
매입채무	26	16	40	40	29
유동성이자부채	5	4	1	40	13
비유동부채	3	15	60	0	95
비유동이자부채	0	9	60	0	95
<b>부채총계</b>	<b>38</b>	<b>39</b>	<b>103</b>	<b>95</b>	<b>140</b>
자본금	43	45	47	48	48
자본잉여금	49	76	79	89	90
이익잉여금	-50	-74	-110	-103	-120
자본조정	0	0	2	2	1
자기주식	0	0	0	0	0
<b>자본총계</b>	<b>42</b>	<b>48</b>	<b>17</b>	<b>36</b>	<b>19</b>

주요지표

(단위: 원, 배)

12 월 결산	2015	2016	2017	2018	2019
<b>주당지표</b>					
EPS	-198	-278	-386	77	-182
BPS	545	533	183	381	200
DPS	0	0	0	0	0
CFPS	-158	-192	-272	302	-4
ROA(%)	-24.0	-29.0	-34.7	5.8	-11.9
ROE(%)	-63.4	-54.2	-111.1	27.3	-62.5
ROIC(%)	-109.2	-78.2	-47.9	29.0	-11.8
<b>Multiples(x, %)</b>					
PER	-30.9	-28.9	-18.9	77.7	-29.6
PBR	11.2	15.1	39.9	15.7	26.9
PSR	7.3	6.4	6.2	2.6	3.2
PCR	-38.5	-41.8	-26.9	19.8	-1,217.2
EV/EBITDA	-31.8	-35.2	-28.4	21.5	-206.1
배당수익률	n/a	n/a	n/a	n/a	n/a
<b>안정성(%)</b>					
부채비율	91.2	82.7	602.3	259.9	733.5
Net debt/Equity	-66.3	-40.1	245.3	18.7	401.5
Net debt/EBITDA	200.4	95.7	-164.9	25.3	-2,680.0
유동비율	132.1	183.0	130.2	77.7	225.6
이자보상배율(배)	n/a	n/a	n/a	2.8	n/a
<b>자산구조(%)</b>					
투하자본	28.0	44.6	70.3	50.3	68.3
현금+투자자산	72.0	55.4	29.7	49.7	31.7
<b>자본구조(%)</b>					
차입금	10.9	21.7	78.0	52.7	84.9
자기자본	89.1	78.3	22.0	47.3	15.1

**[ Compliance Notice ]**

(공표일: 2020년 11월 30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업분석팀)

본 분석보고서는 거래소 코넥스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KONEX Research Project)에 선정되어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체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 산업 투자의견 ]**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

(기준일: 2020년 09월 30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3.5%	6.5%	0.0%	100.0%